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9월 5일(월) 오후 2시,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던

제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현장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예정대로 지난(5일) 개강하였다. YMCA대강당을 배움의 열기로 가득 메운 이날의 모습은 「경건과 교양」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학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제1교시의 로마서 강해와 서양 교전을 재조명해보는 제2교시의 특강으로 구성된 이번 학기의 세미나에 전국 목회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의가 시작한 후로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강단이 새로워지고, 전국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계속하여 기도하며 봉사으로써 이 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



▲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들의 배움의 열기로 가득한 YMCA 대강당

▼ 로비에서는 등록하시는 분들, 교재와 유인물을 받으시는 분들,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분들로 붐볐다.



▲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기도 하며 ... (행17:11)



비전 2000운동



1994. 10. 2. - 11. 20.

▲ 주요 행사 일정

- 10월 2일 - 비전 2000운동 선포식
- 10월 9일 - 전교인 노방전도
- 10월 16일 - 전교구 가족 만남의 주일
- 10월 23일 - 전교인 노방전도
- 10월 30일 - 전가족 만남의 주일
- 11월 6일 - 모든 친구 초청 주일
- 11월 13일 - 이웃 초청 주일
- 11월 20일 - 총동원 주일, 승전감사예배

• 제 7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

첫 날(8일), 성찬예식으로 시작된 제 79회 총회는 전국 52개 노회에서 1822명의 총대가 참석, 김기수 목사(경북 안동)를 총회장으로, 정복량 목사(전북 전주)를 부총회장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오는 14일(수)까지 계속된다.

창세기 강해



성숙한 신자, 아브라함

(13장 14절 ~ 14장 17절)

이 중 운 목사

범죄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새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13:14-15)고 하시며 새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한편 롯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 땅이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비옥하게 보였으므로 죄악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가 전쟁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소도시국가 5개국과 힘있는 4개의 나라가 싸운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대전이었습니니다. 전쟁의 결과는 약소국이 모였던 팔레스타인 연합국은 싯딤 근처에서 역청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군사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때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가 되어서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한 이 사건은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많은 유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성숙한 신자 아브라함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구분하는 척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신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가다가 곤경에 빠진 롯을 구하기 위해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가서 그를 해방시키고 빼앗긴 재물까지 다시 찾는 승전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전쟁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셨는데 화평을 추구해야 할 성도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전쟁자체를 반대하는 평화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악(大惡)을 막기 위해 소악(小惡)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전(聖戰), 즉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했던 전쟁이 성전입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을 시켰고 그가 한 전쟁으로 오히려 축복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승전을 하고 귀가할 때에 그를 맞이했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영접하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14:17-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라는 멜기세덱의 찬송 속에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전쟁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롯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방관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100%아루시는 것이지만 인간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처지를 구경만했다면 그는 성숙한 신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이웃을 향한 관심을 부단히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당한 형제들에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친족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구하기 위해 찾아잡니다.

2.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성숙한 신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은 그 당시 존귀하여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드온 군대가 적은 수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이 기드온의 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오늘 개인의 운명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돌맹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삼상 17:47).

21세기를 앞둔 우리에게도 날마다 안팎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시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보람있는 인생

살군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은 보람만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축복이나 기쁨이 되기 보다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될 뿐이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준 청지기에게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 이를 갈라고 하신 저주의 말씀은 일의 의미도 보람도 모르고 안일주의 기회주의 무사주의에 빠져 눈에 보이는 명분에 매여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와 멸시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던져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미와 감사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충성과 희생을 더할수록 일의 보람과 가치는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자.

어거스틴은 서양 역사 철학의 원조로서 그의 사상은 천년간 중세를 지배해 왔으며 후에 헤겔과 마르크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좌우학파를 막론하고 그의 사상적 틀을 빌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어거스틴의 역사철학은 그의 만년의 저서 「신의 도성」에 나타나 있으나 그전에 저술한 「고백록」에 이미 그의 역사 철학의 구조가 전개되어 있다. 「고백록」은 그가 육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기까지 생의 한도막을 저술한 것으로 이야기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히랍 로마 전통의 이분법을 받아들여 이원적 요소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제 1기 - 경건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와 그와는 대칭적인 다소 세속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어거스틴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

· 제2기 - 어린시절, 지혜로운 어머니의 영향 하에서 라틴 문학에 능하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공부해야 할 신약성경의 언어인 히랍어는 싫어하여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는다. 익지 않은 배를 주인 몰래 따서 돼지에게 던지는 자신의 모습은 배를 먹으려한 욕심에서 딛 것이 아니라 악행 자체를 즐기는 원죄의 활동임을 고백한다. 한편, 학업성적은 우수하여 더 큰 도시로 가며 그곳에서 인정받는 학생으로 행세한다.

· 제3기 -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하녀와 동거하여 자식을 낳아 죄를 전승시키는 삼중적인 죄를 범하는 반면, 인정받는 교수로 다른 사람에게 학문을 전하는 자신을 묘사한다. 죄가 심화되어감과 동시에 지성도 점점 발전되어가는 양극적 상태에서 그는 마니교를 신봉하게 된다. 선과 악은

9월 5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어거스틴의 생애와 그의 저서 『신의 도성』

강사 / 한 태 동 박사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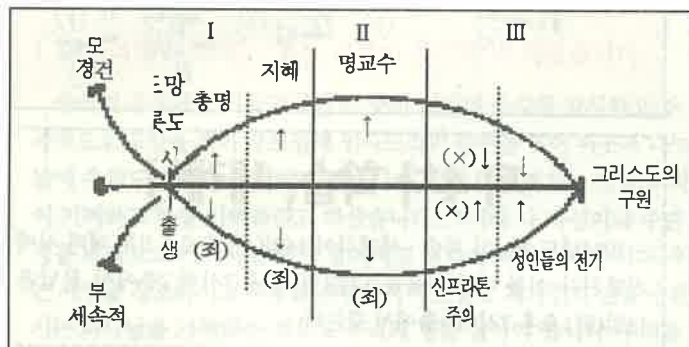
자신의 인생행로를
대립적 관계로 발단되는 과정,
그 대립이 양극화되어 절정에 이르는 단계,
대립이 해소되어 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서술한 <고백록>의 전개 구조는
우주의 역사적 운명을 취급한
<신의 도성>의 원형이 되었다.
그의 저서에 나타난 역사 철학은 후일
구원의 역사관을 창설하는
선구적인 소임을 하였다

별개의 것이라고 여기고 이 둘이 한 몸에 있
나 그 갈등은 합리화되고 있다. 신플라톤 철학
을 연구하면서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라는 것
을 배우게 된다. 어거스틴은 선악을 일원론적
으로 보게 됨에 따라 자기의 이중적 생활 때문
에 번민에 쌓이고 성직자들의 전기를 통해 금
욕적인 방법으로 악을 이겨보려하나 악의 세
력이 점점 더 거세게 작용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던 중 이웃 어린아이가 ‘들고 읽으
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로
마서 13장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
으라”는 말씀을 대하게 됨으로 그 때부터 새 삶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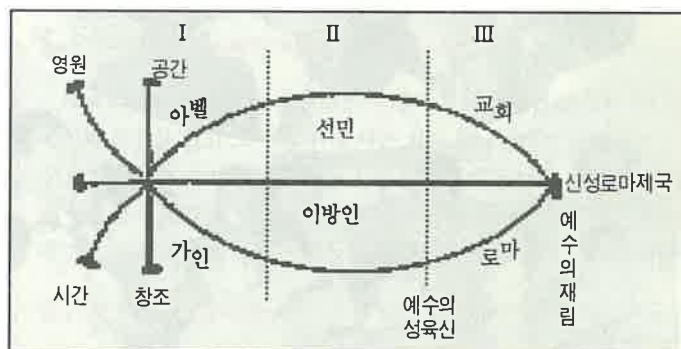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생애를 대립적 관계로 발단되는 과정, 그 대립이 양극화되어 절정에 이르는 단계, 그 대립이 해소되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마치 음악의 소나타 형식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는 위와 같은 구상으로 인류의 역사발전을 설명하였다. 즉, 일지될 수 없는 영원(무한)과 시간(유한)을 창조의 개념으로 엮어 역사의 시점으로 삼았다.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이 타락한 후 아벨과 가인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선민의 선조로, 하나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어 대립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계기가 되어 교회와 로마제국으로 대립상태에 놓이다가 신성로마제국으로 화합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고 하였다.

신의 섭리 아래서 역사가 창조에서 타락, 다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복
구될 것을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 <고백록>의 구조



▲ 〈신의 도성〉의 구조

어거스틴은 창조에서 시간과 공간의 대립이 시작되고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이것이 더욱 대립되어 오다가 그리스도와 대결함에서 이 공간적인 모순이 해소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의 인생행로를 서술한 「고백록」의 전개 구조는 결국 우주의 역사적 운명을 취급한 「신의 도성」의 원형이 되었고 후일 구원의 역사관을 창설하는 선구적인 소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9월 19일.

•목회자 신학세미나 휴강•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9일에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없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3일(개천절)에도 휴강함을 알려드립니다.



교회학교 이모 저모

■ **사랑부** - 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학교 사랑부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별관에서 「사랑의 큰 잔치」를 열고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매주일 오후 2시 별관에서 집회를 가지는 사랑부는 교사가 많이 부족하여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아 주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

■ **탁아부** - 주일에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36개월 된 영아까지를 맡아 돌보는 탁아부에서는 지난 6일(화)에 모처럼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평소에는 엄마는 대예배를 드리고 아기들은 탁아부에 남는데, 이날은 엄마와 아기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작과 그림그리기도 하고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순서도 가졌다.

탁아부에 처음에 오면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발버둥을 치며 울기도 하지만 몇번만 참석하면 꼭 잡았던 엄마 손을 놓고 자연스럽게 선생님 품에 안긴다. 탁아부에 나오는 아기들은 아직 말도 또렷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찬양과 울동을 익숙한 숨씨로 따라하며 기도시간에 손을 모을 줄 안다. 짧은 노랫말로 찬양을 드리지만 아기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탁아부의 집회는 본당 2층 탁아부실에서 매주일 9시와 11시 두차례 갖는다.



■ **청년부** - 지난 주일(4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교회설립 당시 대·청부로 출발하였다가 지난해 5월 청년부로 분리 독립한 후 두번째 정기총회를 연 것으로 회장에는 김성규 군이, 부회장에는 문혜진 양이 당선되었다. 청년부 집회는 매주일 오후 2시부터 2층 예배실에서 갖고 있다.

■ 우리 삶에서 갱신되어야 할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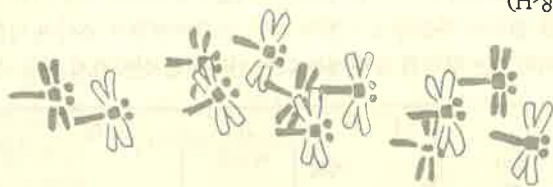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후퇴한 그 까지도 전황을 모른채 우리가족은 고향에서 월남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향의 예배당에서는 어느 장로님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설교 말씀이 계속되던 중,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리는 듯 했고 창유리가 모두 부서져내리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예배당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에 포탄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예배당 안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장로님의 설교 말씀이 계속되었고 성도들 중에도 자리를 뜨거나 동요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모습이었다고 기억된다.

그 후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상황이 늘 새로워서, 그 예배당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며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곤 한다. 그나마도 오늘의 내가 예배 시간에 몸과 마음을 내 편한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만한 예배의 자세를 신앙선배인 옛 성도들에게서 보아왔기 때문이고 당시의 모습들이 나를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예배드리는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함도 통감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교회당 안에서의 자유분방한 모습들, 경의심이 결여된듯한 예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될 때마다 그 때와 같이 다급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재연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일념으로 요지부동할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를 상상해 보며 내 스스로 최고의 예배를 위한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곤한다.

(H성도)



제 4차 학습, 세례식

1994년도 제 4차 학습·세례식이 14일(수) 수요일 I, 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2일(월) 오후 7시에 2층에서, 문답은 13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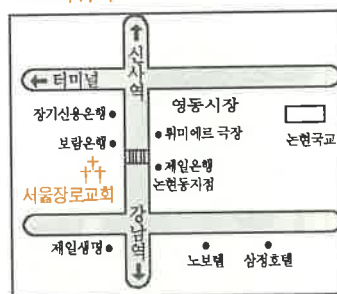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제 6학기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기를.
2.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자라나도록
3. 9월8일에 시작하여 14일까지 계속될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79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